



치어썬스 입데이트

까스까다 마을의 마리아 자매. 2년간 설교자가 없어 폐쇄했던 교회문을 다시 열자 얼마나 즐거워하던지요...

마야인의 신분증?

마야인을 어떻게 분간하는가? 그들도 신분증이 있었을까? 유카탄 반도 마야인들의 공통점은 목이 없어보이며 키

가 작다는 것입니다. 파바스코 지역의 올메카 인들은 얼굴이 네모났다고 합니다. 어느 벽화에서 발견된 마야인은 이마와 코의 형태가 독특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널판으로 짓이겨진 얼굴... 그들은 이런 것을 아름다움 내지 남성다움으로 여겼는듯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독특한 신분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굵임없는 이방인들과의 다름으로 서로를 분간할 수 없어 시행된 당대의 신분증이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의 신분증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자신을 구별하십니까? 무엇이 다른 이들로 구별하도록 하는가요? 현대사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독특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빛이요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구별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신분증이 되고 있는가요? 마야인들에게서 진리를 배웁니다.



후아나 자매(위 오른쪽)는 꼬까옷을 입고 생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날 차려입는 것이 아니고, 평상복인데 오늘은 좀 독특해 보이네요.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른들은 아직도 고유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사랑받는 의상은 아니랍니다. 우

세대교체

리는 개량하여 한복을 젊은세대들도 많이 착용하지만 이곳 젊은이들(왼쪽, 수련회)은 인디언이라고 취급받는 지름길이라 생각되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현재 이들에게 남은 문화유산은 언어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어 점점 잊혀가는 그래서 마치 고전이 되어버린듯 등한시되는 출성경이지만 제게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또 하나의 재료로 남아 있습니다. 부디 이들이 세대교체를 거듭하더라도 유일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겨, 즐겨 읽히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실마련 마무리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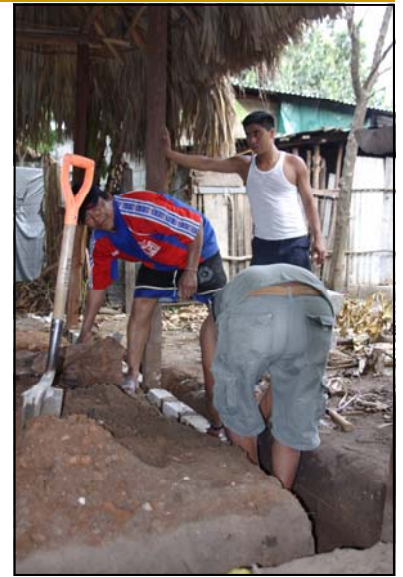


벽돌과 시멘트를 구입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우리 부부도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립심을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손으로 학교교실을 마련하는 기쁨... 학생들과 더불어 마치 내집 짓기식으로 꼼꼼히 과노를 잘라냈습니다. 그동안 째째된 모아 자갈, 모래,

생각같아서는 어느 교회라도 찾아가서 통사정하여 학교교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도 싶었지만, 사역이란 그것이 아니지 않던가?

조그만 교실 마련하는데 2년이 걸렸네요. 비싼 재료들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작은 정성이 모여 이루어진 것만큼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라 믿습니다. 학생들의 노고를 기도로 구입합니다. 한때 차비와 교과서 구입할 경비가 없어 20개의 꿀병을 들고 학교를 찾은 디에고 형제(아래사진, 4)가 생각나네요. 얼마나 마음으로 기뻐하였는지요. 뜻있는 주님의 지도자들이 꾸준히 양성되기를 기도하며 학교를 축복합니다.



* 같이 * 기도 해 * 주 세 요 *



1 언은 결혼 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AL-PREPA는 또 한번

자녀 키우기가 어디 쉬운일인가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최대한 잘 가꾸어보자고 한평생 노력하는 것이지요. 복받은 부모되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늘 웃음으로 인사하던 미겔 장로(1)가 눈물보름 터트렸습니다. 복된 순간이었지요. 남성우월주의로 가정이 무너지고 혼란한 성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한 남자가 주앞에 아버로서의 불찰을 회개하였습니다. 가정 세우기는 더욱 필요한 사역이 된 것이지요. ***** 한몸이 되었느니라는 선



2

조각난 사회에 연합예배(2)로 하나되기를 호소하였습니다.—주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회수가 거듭할수록 자연스럽게 위지는 모임은 순수한 의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바탕 웃고 은혜받는 자리였습니다. ***** 우리 나나가 많이 씩씩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동

관심 밖이었던 청소년 수련회(3)가 새로운 교회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쏘띠끄교회와 아리마대교회의 가족헌금(4)이 전적으로 이루어져 다음날 새벽, 동네가 조용해 질 정도로 풍성한 식탁이 마련되 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한

네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는 지... 온시선이 그들에게 꽃힙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은혜가 족합니다.



3



4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
1.800.346.0075
www.crwmm.org

Rev. Abraham & Elaine Lee
Palenque, Chiapas, 29960 Mexico
abe@nanana.org (이정수 목사)
Elaine@nanana.org (이은희 사모)
www.nanana.org



Christian Reformed World Missions